

2001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2001년도 도서관계는 매우 힘들었지만, 한 편으로는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때이기도 하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도서관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서관 발전을 위한 도서관계 내부의 역량 강화가 특별히 요청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 기억할 만한 도서관계 상황을 정리해 봄으로써 2002년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001년 10대 뉴스는 한국도서관협회 간행물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선정하였다. ■ 편집자 주 ■ 정리 : 이용훈(기획부장)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2002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001년 대비 38.9% 증가한 13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도서관 사업이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 불가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도서관계와 시민단체 등이 자료구입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고, 문화관광부도 적극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내년(2002년)에도 134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중에는 그 동안 직접 출판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우수학술도서선정 사업이 내년부터는 선정도서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내용도 포함되어 점차 지원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도서관 재정확보에 있어 다변화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서관 예산 확보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공도서관 부문, 어려움 계속

1998년 건물 완공 이후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간의 공방에 의해 뒤늦게 문을 열게 된 거제도서관, 광진구립정보도서관의 간부인선 문제로 광진구주민들의 주민감사청구, 강원도교육청의 5개 도서관 명칭변경, 목포시립도서관 등의 민간위탁 등 올해에도 공공도서관계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태들이 기본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정부나 협회 등 도서관단체들의 적절한 개입과 대처가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단위의 강력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진구립정보도서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 제고와 지지세력 확보가 향후 도서관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도서관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단위 도서관 활동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가 제기되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 사업 본격 시작

1999년 초 입안된 ‘도서관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른 도서관정보화 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되어 전국 공공도서관(200관)과 학교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12월 초 그 동안의 전자도서관을 디지털자료실로 확장하여 향후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경기도가 사이버중앙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이제 공공도서관도 실질적인 정보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 내년부터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향후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정보화 사업 추진에 큰 힘을 받게 되었다.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 서비스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 자료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이 6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00년 도서관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구축한 것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들의 서지 및 소장상황을 검색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목차/초록, 표지 등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에서는 편목작업의 간소화에 따른 예산 절감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른 국가자료종합목록DB의 고품질화, 목록구축의 중복방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책(eBook) 부문의 발전도 가속화 되어 개인 및 도서관에 대한 전자책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한양대, 원광대 도서관 등에서는 모바일 기술을 도입하여 무선 도서관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등에서는 차세대 전자도서관 모델을 제시하는 등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다양한 도서관 발전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학교도서관 부문 발전 기반 조성

1월 29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하면서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고 이 국에 소속된 조정2과에 “대학 및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의 운영지원”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드디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각계 각층의 꾸준한 학교도서관 살리기 운동의 결과로 평가되었다. 한 편 경기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에서 2001년 말 총 33명의 초등 및 중등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최근의 학교도서관 운동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5개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지원팀이 설치되어 서울시의 가능성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안)' 제정 운동이 큰 호응을 얻어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향후 학교도서관 부문 발전의 기반 조성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근로나 임시직 사서교사를 통해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서교사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일부 부작용도 심화된 한 해였다.

서지학 분야 성과 뚜렷

올 해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의 불경언해서이며 당시의 글자와 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월인석보' 권20이 한성대학교 강순애 교수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서지학자 박철상 씨에 의해 서기 1101년 고려 숙종 때 왕실도서관의 것으로 보이는 직인이 찍힌 고문헌 5종이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고려시대 도서관의 존재를 알려주는 근거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자문회의 제5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신청한 '직지'와 '승정원일기'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등과 함께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으로 추천받았다. 연말에는 미국의회도서관이 '의회도서관의 세계 보물들 : 초기 유물들'이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회를 열면서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해 문명을 혁신시켰다는 일반 상식과 달리 최고의 금속활자는 한국의 직지'라는 내용의 광고를 워싱턴 포스트지(紙)에 게재하여 우리나라가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서지학 분야의 성과를 통해 우리 도서관계의 역사적 전통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도서관 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하겠다.

NGO의 도서관 살리기 운동 활발 및 공중파의 독서 프로그램 편성 확대

2001년 4월 '사이언스북 스타트 운동 추진본부', 6월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작년에 출범한 '학교도서관살리기 국민연대' 등 NGO의 도서관 살리기 운동과 독서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한 해였다. 특히 한국도서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는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은 도서관 장서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세미나 개최, 공공도서관 확충과 도서관구입비 증액 요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의 핵심적 지식기반인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 편 2001년 3월 3일과 4일에 KBS한국방송 창립 28주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TV, 책을 말하다'가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음에 따라 5월부터 같은 이름의 독서 프로그램이 매주 방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MBC TV의 '행복한 책읽기', EBS의 '정운영의 책으로 읽는 세상', SBS FM Radio의 '책하고 놀자', KBS AM 1 Radio의 '이 주향의 책마을 산책' 등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독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또한 연말에는 MBC TV에서 오락성을 가미한 책읽기캠페인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가 방송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과 독서진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다.

사서직 고용불안정 심화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 지지가 늘어나는 한 편으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도서관 만들기 사업과 공공, 대학도서관 등의 정보화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주로 사서인력을 임시직이나 계약직, 심지어 공공근로 형태의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오히려 사서직의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 사서직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실업문제와 맞물려 사서들의 고용안정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제4판 초안과 대학도서관 평가기준 발표

한국도서관협회는 12월 말 1983년 제정된 한국목록규칙 제3판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4판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작업은 제3판 제정 이후 무려 19년 만에 이루어진 작업으로 표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고, 통일표목도 적용하지 않는 등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3월에는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 작업은 현재 대학평가 등에서 적게 다루어지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대학평가 시 도서관 평가비중을 크게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다양한 전문도서관 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설립한 '국가보안법 자료실', 고 김중배추모사업회가 설립한 '노동운동 역사자료실', 여행가 김찬삼씨가 설립한 '여행도서관', 21세기 복지회가 설립한 '온고을 노인 도서관', 성공회대학교에서 준비중인 'NGO도서관', 광주향교의 '족보도서관', 광주일곡도서관의 '민주·인권자료실', 등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주제의 전문·특수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전문도서관 개관은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 변화를 수용하여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과 적극적 협력과 확산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